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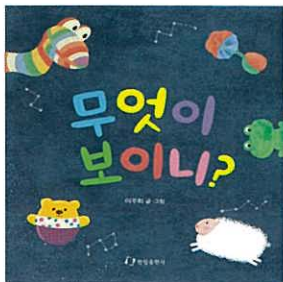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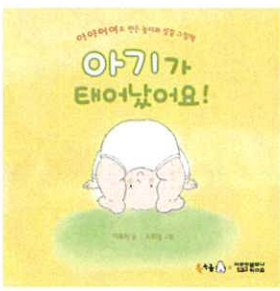




##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꼭꼭 숨어라	박미영	포링고	2022	 <p>숨바꼭질에서 술래가 된 여우가 동물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여우는 숲속 곳곳에 숨은 친구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동물의 일부분을 보고 '누구일까?' 추리하며 여우의 친구들을 찾아보자. 각 동물의 특징을 담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아이는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부분을 보고 전체를 추리하는 인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p>
2	내일이 뭐하니?	김지연	키다리	2020	 <p>'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자라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작가의 발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담겨 있어 자연스럽게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장면을 판화로 작업했으며 매끄럽지 않는 선과 면에서 작가의 개성이 느껴진다.</p>
3	누구나 연주회	박현중	종이종	2021	 <p>고슴도치의 작은 두드림으로 시작된 경쾌한 숲속 연주회를 그린 작품이다. 고슴도치가 나뭇가지로 그루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도토리 모자를 손에 쥔 다람쥐가 찾아오고, 또 그 소리를 듣고 포도나무 이파리를 입에 문 기린이 찾아오며 연주회는 점점 커진다. 무엇으로든 연주해도 되고, 누구든 함께해도 되는 '누구나 연주회'가 열린 것이다.</p>
4	눈 코 입	백주희	보림	2017	 <p>코코코코 놀이를 꼬리 잇기 형식으로 살짝 변형해 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했다. 아기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차례로 등장시켜 흥미를 더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를 비교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작이나 끝이 딱히 없는 원래 놀이와는 달리 아주 사랑스럽고 재치 있는 '끝'도 갖추었다.</p>
5	대단해!	신혜원	딸기책방	2022	 <p>적절한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되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충족하며 성장하면서 어떤 도전이든 즐겁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lt;대단해!&gt;는 칭찬받고 칭찬하는 즐거움을 아기들과 나누기 위해 출간되었다. 책장을 넘기는 아기 독자는 멋진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대단한 구석이 있다. 우리 아기도 말할 수 없이 멋지다.</p>



##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딩동! 누구지?	조영지	그린북	2021	
6	<p>《딩동! 누구지?》를 펼친 아기 독자들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한다.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족들이 한 명씩 귀가할 때마다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강아지뿐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발소리와 문 소리에 누가 오는지 궁금해하고, 가장 먼저 뛰어나가 반가움을 표현하는 아기의 마음을 강아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p>				
	무엇이 보이니?	이주희	한림	2018	
7	<p>엄마와 아빠는 배 속에서 꼬물거리는 아기를 기다린다. 누구를 닮았을까,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언제쯤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기대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익숙했던 부모도 시선이 달라진다. 부모는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공감하며 새로운 눈을 갖는다. 이 책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 때까지 부모와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과 행복이 담겨 있다. 이제 갓 세상에 눈뜬 모든 아기들과 부모를 위한 책이다.</p>				
	반짝	최정선	보림	2021	
8	<p>‘반짝’이라는 낱말로 빛의 반짝임과 깨어남과 활기로 가득한 아침을 그려낸다. 동이 트고 여명이 비추며 살아있는 것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의 반짝임, 아침햇살을 받으며 활기가 되살아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반짝’이라는 낱말 하나로 재치 있게 담아냈다.</p>				
	밤톨이	문중훈	한림출판사	2020	
9	<p>“췌! 밤톨이가 잠들었어요.” 곤히 잠든 밤톨이와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몸놀이 시간이 시작된다. 부엉이, 판다, 두더지, 강치, 펭귄, 고릴라, 코끼리, 토끼, 고래, 펠리컨을 따라 밤톨이의 귀여운 몸짓이 펼쳐진다. 한바탕 놀고 나니 동물 친구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이다. 밤톨이 엄마는 어디 있을까? 꿈꾸면서 자라는 우리 아이를 닮은 『밤톨이』는 재미있는 몸짓과 말소리로 자연스러운 몸놀이와 말놀이를 유도하는 보드북 아기 그림책이다.</p>				
	빼꼼, 까꿍!	살구나무씨	여우고개	2018	
10	<p>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까꿍놀이. 아이가 즐거워하는 까꿍놀이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는 그림책이다. 귀여운 돼지, 고슴도치, 사자, 병아리, 부엉이, 펭귄과 함께 까꿍놀이를 해 보자. 수채화풍의 예쁜 그림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보드북으로 제작되어 아이가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안심할 수 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온몸으로 읽어 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p>				

##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루리	북극곰	2022	
11	'아야어여'로 만든 말놀이 그림책으로 쉽고 재미있는 아야어여 말놀이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몽글한 감동이 전해진다. '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야! 야옹이도 태어났지요. 어! 어느 날 둘이 만났어요.'라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와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재미와 의미와 지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그림책이다.				
	엄마가 안아 줄게	김은정	그린북	2022	
12	《엄마가 안아 줄게》를 펼친 아기 독자들은 암탉과 병아리, 고양이, 펭귄, 원숭이 등 친근한 동물들을 하나씩 만난다. 어미 동물이 새끼 동물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모습은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아기 동물들의 귀엽고 천진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엄마 품에 안긴 듯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엉덩이 친구랑 응가 풍!	정호선	푸른숲주니어	2017	
13	아기가 배변 훈련을 통해 기저귀에서 팬티로 옮겨 가는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다감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배변 훈련에 처음 돌입하는 아기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옆에서 같이 힘을 주며 응원하는 부모에게는 친절하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기저귀에서 응가 통으로 옮겨 가는 아기의 배변 훈련 과정을 즐거운 놀이처럼 단계별로 배치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예뻐	신혜원	딸기책방	2021	
14	나들이의 설렘과 기쁨을 아기들과 나누기 위해 출간되었다. 책장을 넘기면 아기 독자는 꼬물꼬물 귀여운 곤충 친구를 만나게 된다. 곤충 친구의 안내로 예쁜 꽃들도 만나게 된다. 모든 친구가 만난 길 끝에는 알록달록 꽃밭이 있어 행복한 꽃 잔치가 펼쳐진다. 아기가 따라 하기 좋은 재밌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읽다 보면 즐거운 말놀이가 시작된다.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김수영	꿈꾸는 지구	2019	
15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되어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 저자는 아들 만복덩이의 첫 생일 선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을 만들었다. 우리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다보니 나를 만들기 위해 이 우주가 존재해왔고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평소 그냥 스쳐지나갔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존재들을 볼 때마다 아이와 나 자신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다정하게 속삭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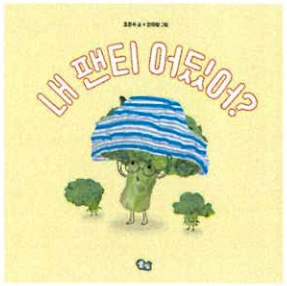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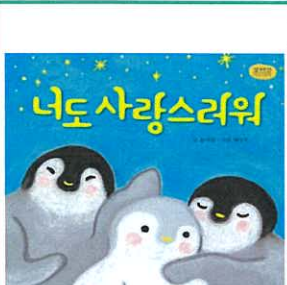

## >> 1단계 도리도리(1세 대상)

16	<b>웃어요</b> 아기와 함께 있으면 아기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 집중하게 된다. 아기가 얼굴을 찌푸리면 엄마도 얼굴을 찌푸리고, 아기가 하품을 하면 엄마도 하품을 하는 등 아기의 행동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아기가 울 때는 어떨까? 다양한 아기 동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통해 아기에게 흥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엄마로 대변되는 양육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아기 그림책이다. 책을 함께 본 다음 아기를 꼭 안아 주며 “네가 웃으면 모두 같이 웃는다.”는 다정한 말을 전할 수 있다.	채상우	키다리	2021	
17	<b>이불에 푹!</b> 저마다 좋아하는 놀이에 빠져 있던 아기 동물들은 잘 시간이 되자, 각양각색 이불을 덮고 잠이 든다. 다람쥐는 바스락바스락 낙엽 이불을, 병아리는 파삭파삭 짚 이불을, 두더지는 포슬포슬 흙 이불을 덮는다. 사랑스러운 아이도 좋아하는 인형들과 한창 재미나게 놀고 있다. “우리 사랑둥이, 이제 잘 시간이야!” 엄마의 말에 아이는 데굴 데굴 굴러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잠자리로 쏙 들어간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는 동시에 좋은 잠자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다.	한얼	책읽는곰	2022	
18	<b>쭈쭈쭈</b> 0~3세 무렵 아이들은 온몸의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눈으로는 그림을 보고, 손으로 책장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보기도 하고, 코로 냄새도 맡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듬뿍 담아 읽어 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와 그림책을 볼 때에는 온몸으로 그림책을 보고 즐기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쭈쭈쭈>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애착 놀이를 하도록 도와준다.	강정연	책읽는곰	2019	
19	<b>후후후</b> 아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후후후’ 입김을 분다. 그러면 동동동 떠오른 비눗방울이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번에는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후후후’ 입김을 분다. 종이배는 아이의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떠간다. ‘후후후’ 입을 모아 바람을 불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후후후’ 입김을 불어보는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놀이하며 즐길 수 있는 0~3세 그림책이다.	서지연	천개의바람	2020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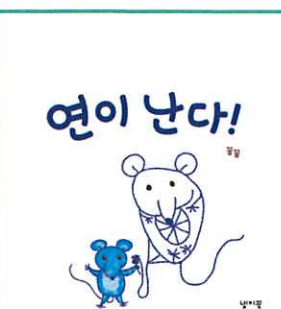

##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내 팬티 어딴어?	조은수	폴빛	2021	 <p>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조은수 작가 글에 안태형 작가가 실제 유아 티셔츠와 팬티, 채소를 찍은 사진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면을 만들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장을 고치고 또 고쳐서 만들었다. 두 작가는 아이들이 이 책을 킁킁대며 재미있게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p>
2	내가 도와줄게!	수목	사파리	2021	 <p>협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 주는 인성 그림책이다. 그림책 속 꼬마 개구리의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날려 높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꼬마 개구리가 목도리를 되찾으려고 힘껏 폴짝폴짝 뛰어 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모습을 본 병아리와 토끼, 아기 돼지 등 친구들이 차례로 다가와 꼬마 개구리를 도와준다.</p>
3	내가 할 거야	장선환	딸기책방	2020	 <p>미운 세 살 아이는 무엇이든 자기 손으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말기지 않으면 말기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막상 말기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투정하고 화를 낸다. 그런 탓에 보호자들은 힘들고 당혹스러워한다. &lt;내가 할 거야&gt;는 미운 세 살의 첫 독립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p>
4	너도 사랑스러워	윤여림	웅진주니어	2017	 <p>여러 동물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거울을 보며 외모에 집착하는 아이로 자라기보다, 자기 안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꿔 나가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스러움의 요인들을 찾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외모에 대한 가치가 어느 때보다 지배적이 되어 버린 요즘, &lt;너도 사랑스러워&gt;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그리고 누구나 본래적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p>
5	노랑, 파랑, 빨강 세상을 물들여요	문승연	딸기책방	2020	 <p>한지에 그려진 투명한 듯 명료한 그림을 보며 책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색들을 만난다. 깊게 숨을 마시면 새삼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은 우리 주변의 당연한 색깔들을 새로운 눈으로 마주하게 한다. 하얀 달이 환하게 웃던 까만 밤이 지나가면 잠을 깬 아침이 어깨를 뒤킅인다. 아침의 뒤킅거림에 산과 바다, 바람도 일렁인다. 어스름한 일렁임 사이로 뜨거운 해가 새롭게 떠오르면 세상은 마침내 색을 얻는다.</p>

##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6	누구 밥일까요?	김은정	그린북	2020	
7	땅콩 동그라미	최윤희	시공주니어	2021	
8	똑똑 누구야 누구?	엄혜숙	웅진주니어	2021	
9	바다 목욕탕	멜리	책읽는곰	2021	
10	빨간딸기	이여희	봄봄	2019	

##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11	상자가 좋아	송선옥	봄봄	2020	
	여기 상자가 하나 있다. 상자 속에는 상자를 뒤집어 쓴 아기가 있다. 아기는 상자를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으며 놀기 시작한다. 한쪽이 뚫려 있고, 한쪽이 막혔던 상자는 양쪽이 뚫려 까꿍놀이도 할 수 있게 된다. 형아가 오면 숨어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사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변형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이 책은 아기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길러 줄 것이다.				
12	야호, 비 온다! 123	곰곰	냉이꽃	2022	
	개구리는 비가 오면 신나게 노래한다. 개굴 개굴 개굴. 책장을 위로 펼치면 개구리가 빗방울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어온다. 아기는 책장을 넘기며 책이랑 논다.				
13	여기에 주세요	장선환	한림	2022	
	흰곰이 “여기에 주세요.”라고 말하며 컵을 내민다. 무엇을 줄까? 컵에는 시원하고 고소한 우유가 담긴다. 이어서 코뿔소가 내민 작은 소쿠리에는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가 쌓인다. 생쥐의 쟁반, 캥거루의 연필꽃이, 고양이의 유리병, 돼지의 책가방, 코끼리의 트럭, 토끼의 이불 그리고 아이의 두 손에는 무엇이 담길까? 그림을 읽고 연상하는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사물 이름과 꾸밈말을 익히며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보드북 그림책이다.				
14	연이 난다	곰곰	냉이꽃	2021	
	공감, 협동과 배려가 담긴 그림책. 생쥐가 동물 친구들과 함께 커다란 연을 날린다. 높이 날아가던 연줄이 툭 끊어졌다. 생쥐는 연을 잃어버려서 슬프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생쥐야,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동물 친구들은 생쥐를 위해 연을 따라 길을 떠난다.				
15	잘한다 자란다	김수정	빨간콩	2021	
	혼자 힘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유아 보드북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혼자 서고, 혼자 걷고, 혼자 먹는 발달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가족들의 ‘잘한다’는 응원과 격려는 아기를 쑥쑥 ‘자라나게’ 한다. 아기에게 이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며, 아기의 성장의 순간들을 함께하자.				

##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잠잠이가 와요	젤리이모	한림	2021	
16	<p>하품 소리가 들리면 잠잠이가 찾아온다. 잠 잠 잠 잠 토끼 입에, 다람쥐 꼬리에, 하마 눈꺼풀에, 아기 해달 배에, 기린 머리에, 엄마 곰 코끝에 잠잠이 온다. 동물 친구들이 잠에 빠져들고, 잠잠이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걸까? 눈을 감고 조용히 잠잠이가 오는 소리를 들어 보자. 포근히 잠든 동물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밤의 풍경이 스르르 잠을 부르는 보드북 아기 그림책이다.</p>				
	젓가락	현재	우주나무	2021	
17	<p>젓가락 상상 놀이 그림책이다. 젓가락질은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그림책은 아이가 젓가락과 친해지도록 돕는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젓가락을 상상하다 보면 저절로 젓가락에 흥미를 보이게 된다. 젓가락을 좋아해서 자꾸 집게 되면 젓가락질 배우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나아가 상상력도 풍부해질 것이다.</p>				
	친구랑 안놀아	노인경	문학동네	2021	
18	<p>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곤란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담아 친근하고 재밌는 해결 방법을 들려준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양육자도 으레 겪게 될 일상의 고민들이 활달한 상상력, 유머러스한 표현, 편안한 수채화를 입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p>				
	털실이 통통	곰곰	냉이꽃	2019	
19	<p>엄마가 잠시 나간 사이 바구니에 있던 털실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아기와 동물들의 신나는 털실 공놀이. 이 책은 동물들이 모두 주인공이다. 아기가 좋아하는 '음메에에 음메에' '반짝반짝' '떼굴 떼굴 떼구르르르' '쉬이익 크악 크악' '통 통 통 통'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p>				
	한 그릇	변정원	보림	2021	
20	<p>밥솥에서 밥들이 나와 바쁘게 준비한다. 오늘 점심의 비빔밥 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했다. 여러 친구들이 모일 것이다. 싱그러운 물방울을 머금은 콩나물, 땅속의 양파와 당근, 깊은 산속에 사는 버섯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용감한 달갈과 바다 건너 사는 소고기도 물론이다. 대장을 받은 친구들은 한데 모여 근사한 비빔밥 잔치를 벌인다. 툭툭 튀는 재미난 상상력으로 한 끼 식사 of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p>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건전지 아빠	전승배	창비	2021	 <p>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힘을 얻는 건전지 아빠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주는 에너지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양모 펠트 인형과 사실감 있게 묘사된 공간, 비밀스러운 상상력이 어우러져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판타지를 선사한다.</p>
2	고구마유	사이다	반달	2021	 <p>말놀이의 재미를 전한 전작 &lt;고구마구마&gt;에서 '-구마' 체로 이야기 하던 고구마 친구들이 &lt;고구마유&gt;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로 돌아왔다. 느리지만 위트 넘치는 충청도 사투리 대사는 고구마 맛보다도 구수하고 정겹다. 운율이 살아있는 문장들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맛이 살아있는 대사들을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실제 생활에서 응용해 말하다 보면 문해력과 말솜씨가 쑥쑥 늘어날 것이다.</p>
3	길어도 너무 긴	강정연	길벗어린이	2021	 <p>낮잠 자는 곰 한 마리, 책 읽는 호랑이 두 마리, 캠핑 하는 사슴 세 마리.... 기다란 꼬끼리 코 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물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숫자까지 익힐 수 있다.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릴리아 작가는 각각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손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동물들은 물론이고, 작은 주변 사물들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곳곳에 숨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p>
4	꽁꽁꽁	윤정주	책읽는곰	2016	 <p>냉장고 속 온갖 친구들이 한판 신나게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이야기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좋아하는 냉장고 속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이 음식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온갖 수다와 함께 멋진 사건들을 펼쳐 간다.</p>
5	낙엽스낵	백유연	웅진주니어	2019	 <p>아기 고라니, 멧돼지, 산토끼, 다람쥐, 들고양이, 작은 애벌레. 모두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사는 작은 생명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다. 작가는 숲속 친구들이 가을날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아기 고라니가 낙엽으로 스낵을 만들어 먹는다는 귀여운 상상력으로 표현했다. 낙엽 스낵을 만드는 고라니 옆에는 깜짝 손님도 등장한다. 이들은 고라니가 낙엽 씻는 것, 꽃잎 따는 것 등을 몰래 도와주면서 낙엽 스낵을 함께 만든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만찬을 준비하며 보다 풍성한 가을날이 완성된다.</p>





##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6	당근 유치원	안녕달	창비	2020	
	<p>아기 토끼가 새 유치원에 가서 몸집도 목소리도 크고, 힘도 장사인 곰 선생님을 만나 점차 선생님과 마음을 나누며 유치원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작가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치원 배경과 생활 모습을 그리면서도 동화적인 따스함이 어려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유년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응원할 뿐 아니라 매일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까지 위로한다.</p>				
7	맛있는 건 맛있어	김양미	시공주니어	2019	
	<p>주인공 아이의 시각적 흐름과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서술된 '맛'의 이야기이자, 아이의 성장 앨범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의 소소한 관찰로 시작한다. 새는 감을 쪼아 먹고, 고양이 아노는 오이를 훔쳐 먹는다. 엄마는 사랑초에게 물을 주지만, '나 선인장'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 어린 동생 연우는 뭐든 입으로 집어넣을 만큼 어리다. 오늘은 단추를 먹으려다 들켰다. 관찰은 아이의 상상을 자극한다.</p>				
8	미안해요	임은경	걸음동무	2022	
	<p>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실수나 잘못을 한 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과의 말, '미안해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로서 진심을 담아 전하는 '미안해요' 사과의 말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꼭 필요한 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과의 말은 정직한 사회, 배려의 사회를 낳을 것이다.</p>				
9	별 낚시	김상근	사계절	2019	
	<p>따스한 이야기꾼 김상근 작가가 들려주는 잠자리 그림책. 김상근 작가가 이번엔 새하얀 눈발이 아니라 푸른 밤하늘, 빛나는 별 천지로 우리를 초대한다. 장면마다 가득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 풍경은 고요한 밤에만 느낄 수 있는 차분하고 깊은 감성을 톡톡 건드린다.</p>				
10	부끄러워도 괜찮아	황선화	모든요일그림책	2021	
	<p>부끄러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못 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린 사자, 그런 사자를 위해 거북이와 박쥐와 늑대가 머리를 맞댄다. 부끄러움 많은 사자는 장기 자랑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부끄럼쟁이에게 다정한 용기와 응원을 전하는 그림책, &lt;부끄러워도 괜찮아&gt;에 시원한 해답이 있다.</p>				

###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11	엄마 어디 있지?	박성우	창비	2022	
	아이가 발달하는 동안 자연스레 나타나는 분리 불안의 모습을 실감나게 담으면서,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아이 마음을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상상으로 어루만지는 이야기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든든한 사랑을 선물한다.				
12	엄마는 모를걸?	심은지	봄별	2022	
	엄마 몰래 벌인 난장판 속에서 마음껏 노는 아이의 즐거운 웃음, 엄마와 딸의 다른 듯 닮은 일상과 유쾌한 유대를 담은 그림책. 어...? 내가 작아졌어! 이제부터 엄마 말 안 들어도 되겠다. 말랑말랑 달콤한 과자를 잔뜩 먹어 볼까? 우유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을 할까?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모를걸?				
13	열두 달 나무 아이	최속희	책읽는곰	2017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은 매화나무 아이, 더불어 나누기 좋아하는 속 깊은 참나무 아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곳곳한 소나무 아이.... 일 년 열두 달, 달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나무가 내가 태어난 달의 나무가 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키워 가는 아름다운 꿈 하나하나가 더 풍부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독이는 그림책이다.				
14	오! 당근	천미진	발견	2021	
	<오! 당근>은 아이들과 조금은 어색하고 먼 사이인 당근이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귀여운 당근 캐릭터를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고, 먼 길을 여행하는 당근의 모습을 보며 당근과 다른 채소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려 준다.				
15	왜냐면...	안녕달	책읽는곰	2017	
	바닷가 마을에 반짝, 여름 소나기가 내린다. 엄마는 서둘러 유치원에 아이 마중을 왔다. 집으로 가는 길, 세상이 온통 궁금한 아이는 질문을 시작한다. "엄마, 왜 비가 와요?"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래." 아이의 끈덕진 질문과 엄마의 친절하고도 엉뚱한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둘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간다. 그리고 늘 오가던 익숙한 귀갓길은 어느새 환상적인 여행길이 된다.				






### >> 3단계 쑥쑥(4~5세 대상)

16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림	창비	2017	
	엄마가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분리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와 부모 모두 건강하게 분리 불안을 극복하고 서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와 부모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한다.				
17	토끼일까?	크림빵	키즈엠	2017	
	<토끼일까?>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물인 토끼를 소재로 한 흥미롭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귀엽고 세련된 그림이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책을 읽으며 유아들은 토끼의 생김새와 특징을 새롭게 인지하고,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 또 단서를 통해 결론을 유추하고 추리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독자가 직접 이야기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특별한 장치를 설정하여 유아들이 이야기에 보다 몰입하며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게한다.				
18	평범한 식빵	종종	그린북	2021	
	<평범한 식빵>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특성을 다양한 빵에 비유하고, 모양도 맛도 아무런 특색이 없는 평범한 빵, 식빵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울퉁불퉁 근육을 자랑하는 크루아상, 겉이 매끈하고 속은 짭 찐 단팥빵 등 글과 그림의 표현이 신인 작가답지 않게 기발하고 짜임새가 있다. 평범함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에 빗대어 이야기해서 쉽고 재미있는 것도 장점이다.				
19	해 한 조각	정진호	올리	2022	
	산산조각이 난 해 조각을 찾아 하나하나 다시 모으는 이야기다. 산으로 간 해 한 조각은 싹을 틔우고, 구름 위로 올라간 해 한 조각은 무지개로 피어난다. 달로 떨어지는 해 한 조각은 어떻게 될까? 그림책을 읽으며 상상해 보자. 여기저기로 흩어진 해 조각은 어디로 떨어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말이다.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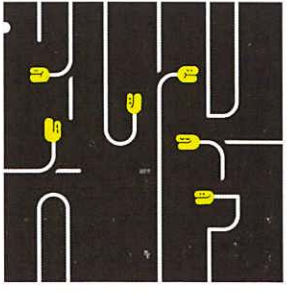
## >> 4단계 주옥주옥(6~7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감기 걸린 날	김동수	보림	2022	
2	궁디팡팡	이덕화	길벗어린이	2019	
3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밤코	바독이하우스	2018	
4	김철수빵	조영글	봄별	2022	
5	껌	강혜진	향	2020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6	나는 개다	백희나	책읽는곰	2019	
7	슈퍼토끼	유설화	책읽는곰	2020	
8	연이와 버들도령	백희나	책읽는곰	2022	
9	원손에게	한지원	사계절	2022	
10	용기를 내, 비닐장갑!	유설화	책읽는곰	2021	

## >> 4단계 주옥주옥(6~7세 대상)

11	<b>이런, 개복치!</b> 누군가 나약하거나 소심한 태도를 보일 때 우스갯소리로 '개복치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작은 일에도 툭하면 쉽게 죽는다고 알려진 개복치 때문에 생긴 말인데,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알에서 막 태어난 새끼 개복치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3억 개의 알을 낳아도 성체까지 무사히 자라나는 개복치는 한두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아 개복치가 작은 일에도 쉽게 죽는다는 편견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개복치!>는 그런 개복치에 관한 오해를 재미있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이선주	킨더랜드	2021	
12	<b>척</b> 강아지 캄돌이가 엄마랑 낮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드룩 드룩!' 낮선 소리가 들린다. 마침 낮잠 자기 싫었던 캄돌이가 깜짝 놀란 척 벌떡 일어난다.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데도 캄돌이는 못 들은 척 왔다 갔다 하다가 망설이는 척 주춤하더니 대문 밖으로 나간다. 캄돌이가 걱정되었던 엄마는 몰래 그 뒤를 쫓아간다. 캄돌이는 술래인 척 소리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만,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캄돌이는 실망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오줌을 싸아! 그런데 달팽이가 보고 있다. 캄돌이는 부끄럽지 않은 척 성큼성큼 걸어가 다른 놀이를 찾는다. 때마침 나비 친구도 만난다. 무서워도 무섭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신나고 즐거운 캄돌이의 첫 동네 산책이 펼쳐진다.	장순녀	봄개울	2022	
13	<b>콩나물</b> 서로라서 빛나고, 서로라서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는 어느 날 문득, 콩나물을 보며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떠올렸다. 함께 모여 자라는 콩나물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해야 아름다운 빛을 내며 자랄 수 있는 우리를 말이다. 때로는 뻥뻥한 콩나물시루처럼 꽉 막힌 듯 답답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주는 온기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낸다.	정은선	반달	2022	
14	<b>털털한 아롱이</b> 우리 집 강아지 아롱이는 털이 엄청 많고, 또 엄청 빠진다. 우리 집은 금세 아롱이의 털로 가득 차고, 숲속에는 따끈하고 폭신한 털집이 있다는 소문이 짹 퍼진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포근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은 동물 친구들이 줄지어 털집으로 몰려드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려견의 털 한 올에서 출발한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문명예	책읽는곰	2020	
15	<b>팔빙수의 전설</b> 깊은 산속에서 할머니가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탕글탱글 과일이 익어 가고 달달구수한 단팔죽이 완성되자, 시장 내다 팔기 위해 할머니는 길을 나선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눈이 펄펄 내리더니, 새하얗고 커다란 눈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는데.... 기발한 상상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빛어낸 유쾌, 통쾌, 훈훈한 그림책이다.	이지은	웅진주니어	2019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호랑이 생일날이렀다	강혜숙	우리학교	2022	
16	우리나라 민화와 민담 속 호랑이를 새로 엮은 그림책이다. 민화와 민담 속 호랑이들이 한배에서 나고 자란 아홉 마리 호랑이 형제로 재탄생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매력과 재미를 보여 준다.				
	흥칫뽕	수아현	현암주니어	2018	
17	잔뜩 뽕이 난 아이의 마음속을 글로, 아이를 보듬기 위해 애쓰는 이웃과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림으로 담은 그림책이다. 내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섭섭했던 어느 날 벌어진 소소한 소동은 아이에게 더없이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만나게 된 아이의 특별한 하루를 그린 이 책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에서 영감을 받아, 쓰고 그린 책이다. 동네 구석구석 정겨운 풍경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까지 이야기 속에 깨알 같은 재미를 더한 귀여운 그림책이다.				